

# 캄보디아, 베트남을 다녀와서

## - 캄보디아 편 ③ -

서부지점 안재준

**| 앙**코르 지역 관광의 백미인 앙코르 왓은 일단 그 규모에서 압권이다. 앙코르는 “중심”, 왓은 “사원”이라는 뜻으로 앙코르 왓은 “사원의 중심”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 웅장함은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비교되었다.

이 사원은 수르야바르만 2세가 힌두교의 비쉬누 신에게 봉헌한 사원으로 즉위한 해부터 공사를 시작, 사망한 해까지 공사를 계속했다고 하는데(무려 30여년이 나) 이는 수르야바르만 2세가 사후 자신이 문힐 영생의 집(마치 이집트의 파라오들이 즉위 때부터 사후를 대비하여 피라미드를 짓듯이)으로 건축했다는 것이다.



▲인간계와 천계를 가르는 해자

징이자, 외적방어를 위한 방어벽 역할을 하였다. 다리를 건너서면 중앙의 탑문 상층부가 잘려져 있는데, 이는 탑문 속에 보물이 들어있어 외적(씨암족)들에 의해 훼손됐다고 한다.



▲앙코르 왓 안내도

앙코르 왓의 본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해자를 통과해야한다. 이 해자는 인간계와 신계를 구분하는 상



▲잘려진 탑문



▲도서관의 용도로 추측되는 건물



▲연못과 어우러진 앙코르 왓 전경

탐문 옆에는 베트남전 당시 요새로 이용하던 베타콩들과의 전투로 생긴 총탄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유적이 파괴될 것을 우려한 양측에 의해 베타콩의 안전한 철수보장으로 이 유적이 남아 있을 수 있었다고 한다. 탐문에서 본당에 이르는 길을 가다보면 양쪽으로 건물들이 한 동씩 있다. 도서관의 역할(각종 의식을 위한 도구들의 보관 장소였다는 해석도 있지만)을 했던 것으로 추측되어져 도서관이라고 불린다. 이 도서관을 지나면 길 양 옆으로 폭 50m정도의 연못이 있다. 북쪽의 연못으로 갈 수 있는 사잇길로 약 50여m쯤 지나서 중양 탐을 보면 정중앙에서 보이지 않던 5개의 탐들이 모두 보이며 그 훌륭한 조화로움을 감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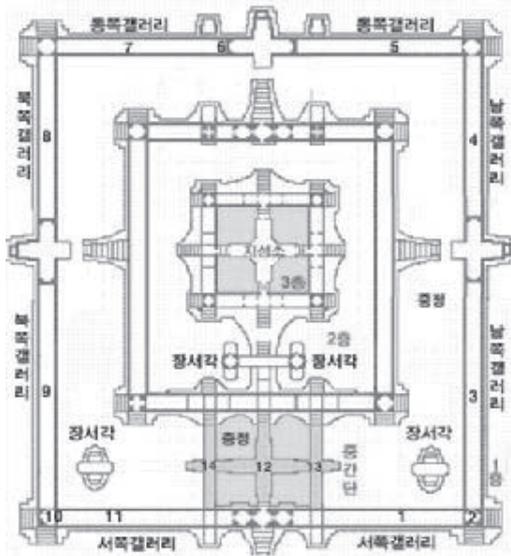
본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사자가 지키고 있고, 십자모양의 단상이 있다. 왕이 종교의식을 참관하거나 외국사신을 맞이하던 곳으로 “명예의 테라스”라고 불린다고 한다.

본당의 1층은 엄청난 서사시를 보여주는 긴 부조를 볼 수 있다. 이를 감상하면서 보는 것도 힘이 드는데(1층 갤러리-복도-는 둘레가 804m로, 서쪽갤러리는 187m, 남쪽갤러리는 215m, 동쪽갤러리는 187m, 북쪽갤러리는 215m의 길이다) 이를 조각한 사람들의 노력이 대단함을 느낄 수 있었다(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조각했다지만, 한 사람이 한 것처럼 그 긴 벽면의 조각이 일치하는 섬세함을 보여준다).

갤러리를 다 감상한 후 중간단을 통해 올라간다. 적당히 보고 중간에 중정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가도 된다.

<tip: 시간과 체력을 줄여 꼭 봐야할 것만 선택하라면 1, 3, 4, 5, 11번 부조 정도를 본다. 그것마저 다 보기 어렵다면, 3, 4, 5라도 꼭!!! 보자. 안보면 후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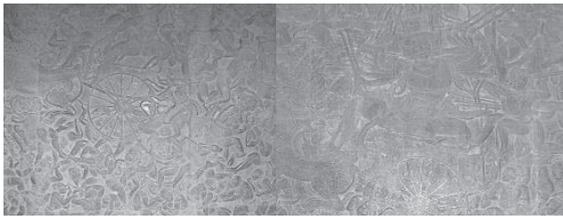
중정으로 들어온 2층은 3층을 위한 기단일 뿐이며 지상에서부터 위를 향해 돌출해 3층은 2층보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하늘을 향해 급격하게 뻗는 대단히 놀라운 공간 처리 기법이 도입되었다. 더구나 3층은 높이에 치중하여 더욱 높아 보이는 시각적 착오까지도 계산에 넣었다고 한다. 3층에는 큰 목욕탕이 있는데 물을 담아두면 아래층으로 물이 새지 않는다 말을 듣



▲본당의 구조

〈1층 갤러리의 부조(Relief) 내용〉

1. 힌두설화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 중 쿠룩세트라 전투 장면
2. 힌두설화의 대서사시 「라마야나」 중 전개 장면들
3. 수르야바르만 2세의 승전도와 충성맹세
4. 염라대왕의 심판/천국과 지옥
5. 힌두 설화 바가바타 푸라나 중 불로장생의 감로수를 만드는 유해교반
6. 기록문자
7. 악마와의 전투와 비쉬누 신의 승리
8. 악마 바나와의 전투에서 승리한 크리슈나
9. 신들과 악마의 대전투
10. 힌두설화의 대서사시 「라마야나」 전반적인 장면과 비쉬누 신
11. 힌두설화의 대서사시 「라마야나」 중 클라이막스 장면들과 중 랑카의 전투



▲압살라와 돌기둥  
돌기둥도 일일이 조각한 것으로  
섬세한 조각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고 현대에도 이런 건축물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2층에서 3층 성소로 올라가는 계단은 매우 가팔라 발을 옆으로 꺾어 조심스레 계단을 밟으며 네발로 엉금엉금 기어오르면 어쩔 수 없이 신 앞에 꿇는 모습이 되고 만다. 이는 3층이 천상계(1층은 미물계, 2층은 인간계를 의미한다고 한다)로서 감히 신들에게 봉양하러 오는 인간이 서서 올라올 수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인간에게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복종 규정인 것이다.

3층 성소는 금단의 구역이었다. 승려계급 이외에는 왕만이 오를 수 있는 신성한 장소였다. 지금 이곳에 들어와 벽에 기대 땀을 씻는 우리는 특별한 대우를 받는 듯하다.

3층은 엄숙함이 깃들여 있다. 열린 창문, 닫힌 창문으로 각 방을 구별하는 회색 건물은 검은 때를 입은 채 고고히 존재하며 수많은 관광객이 있지만 떠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숙연한 분위기이다.

중앙탑은 메루산을 표현했는데, 여기에 수르야바르



▲3층에서 바라본 2층 전경



▲왼쪽 하단이 목욕재계하던 목욕탕인데, 펌프도 없던 그 시절 어떻게 물을 채웠는지...^^



▲매우 가파른 계단



▲앙코르 왓 중앙탑

만 2세의 무덤이 있을 것을 추측하고 있다.

단순히 관광을 왔다가 거대한 앙코르 유적을 둘러보면서 신과 자연 앞에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 하는 반성과 한 시대를 풍미하던 왕조가 역사 속에 사라짐을 보면서 역사의 소중함을 느꼈다.

향후 여행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친다.☺



▲앙코르 왓 앞에서 필자